



금호건설, 캄보디아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 수주

금호건설은 캄보디아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157억 원이다. 금호건설은 6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오른쪽)과 땡 뽀니아(Peng Ponea)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건설



여경현,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 업무협약

여경현은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프랑크푸르트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왼쪽)이 이은주 월드옥타 프랑크푸르트지회장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프랑크푸르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현



동서발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한국동서발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 중구 태화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임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과 임직원 급여 기부금으로 개인별 명절 성수품과 취약계층 지원 물품을 구매했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 세번째)이 장보기 행사에서 떡을 구매하는 모습. /한국동서발전



이랜드재단, '크리스천 멘티 캠프' 성료

이랜드재단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여름 캠프를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리스천 멘티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이랜드재단이 주최하고 선한울타리와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협력사로 참여했다. 정영일 이랜드재단 대표(사진)가 자립준비청년 여름 캠프에 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이랜드재단



한국타이어, '한국테크노돔' 개방... 지역 소통 강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하이테크 중앙연구소 '한국테크노돔'을 대전 시민 80여 명에게 개방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들이 타이어 R&D의 최첨단 시설과 연구 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타이어

미래 전기차 한눈에... 기아, '중남미 E-그라운드' 개소

'플래닛·에너지·모빌리티' 존 운영 리딩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

기아가 에콰도르에 전기차 전용 복합 문화센터를 오픈하고 중남미 전동화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는다.

기아는 중남미 리딩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EV 복합 문화센터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 소재)를 공식 개소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 미래에 대한 영감을 줄 기아의 EV 복합 문화센터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는 지상 1층, 1420㎡(약 430평) 규모로 중남미 권역 고객 경험을 넓히고 기아의 기술혁신과 자연친화적 삶에 기여하는 전동화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는 꽃의 성장, 암석의 형성, 자연요소(물,



중남미 기아 E-그라운드 전경 (좌)외부 (우)내부



/기아

공기)의 움직임에서 발견되는 피보나치 나선 디자인을 적용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내부는 ▲플래닛 ▲에너지 ▲모빌리티 3개 테마 존으로 구성돼 다양한 체험요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남미 권역 소비자 and 미래세대 대상으로 기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전동화, 지속가능 모빌리티 솔루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이다.

우선 플래닛 존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오션 클린업 VR 게임, 탄소 배출 측정 키오스크 등으로 꾸며 기아의 친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 체험공간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전 시 및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V

2L(Vehicle to Load) 및 EV 충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 공간은 EV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ADAS 기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아 브랜드 히스토리 월과 PBV(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호브 부스를 설치해 미래 전기차 시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파츠파츠 “지속가능한 패션 만나보세요”

서울패션위크 제로웨이스트 특별전

제로웨이스트 패션 브랜드 파츠파츠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자사의 친환경 제품군을 선보인다.

파츠파츠가 2025년 봄·여름 시즌 지속 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한 서울패션위크 'Fashion and The Sustainability'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파츠파츠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전시는 단순한 런웨이 무대가 아닌 참여자들에게 패션 브랜드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전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DDP 디자인 랩 4층 잔디사랑방에서 진행된다.

파츠파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친환경 소재만으로 제품군을 구성하는 패션 브랜드다. 파츠파츠에 따르면 4개월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뉴 네오프렌이라는 단일 소재를 자체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무



파츠파츠, 서울패션위크 제로웨이스트 특별전 컨셉 이미지 사진 /파츠파츠

봉제 방식의 의류를 생산한다.

파츠파츠는 제로웨이스트 실현에도 앞장선다.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천과 남은 원단 조각을 재활용해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특히 2011년 브랜드 론칭 이후 제로웨이스트 철학을 담은 제품을 실제 판매용으로 출시하며 그 가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게 파츠파츠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파츠파츠의 고유한 디자인 설계와 생산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 생산 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표 제품을 비롯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추가로 전시된다. 전시는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로웨이스트 철학을 탐구하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이달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에는 임선옥 파츠파츠 대표가 직접 참여한다. 필라델피아 드렉셀대학교의 정재운 교수가 이끄는 패션 전공 학생들도 동참한다.

임선옥 파츠파츠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패션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단편적인 시즌이나 트렌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보인다”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통해 산업적으로도 끊임없이 미래를 탐구하며 해당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환경부 '2024 환경창업대전' 시상

환경부는 오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울 마포구 에스플러스센터에서 '2024 환경창업대전'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9개월간 진행됐다. 아이디어(예비창업자), 스타기업(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2가지 부문으로 진행, 총 290팀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최종경연에서 전문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발표경연을 펼치고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등의 최종 순위를 확정 짓는다.

/김대환 기자 kdh@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 연임

이사회 만장일치 가결

롯데복지재단 이승훈 이사장(사진)이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을 연임한다.

롯데복지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6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승훈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이사 6명 감사 2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이승훈 이사장의 연임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승훈 이사장은 내달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승훈 이사장은 1950년생으로 고



려대학교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기를 수료했다. 1979년 롯데그룹 공채 2기로 입사한 뒤 롯데백화점 본부장을 맡아오다 롯데 스카이힐 CC 대표 이사를 역임하여 약 35년간 롯데에서 활약한 '정통 롯데맨'이다.

그는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과 함께 재단 설립주인 고(故) 신경호 회장의 뜻을 받들어 롯데의 사명을 가지고 회장님의 열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국투자증권 에너지 빈곤국 아동 지원

태양광 랜턴 300개 전달

한국투자증권은 에너지 빈곤국 아동들을 위해 임직원 및 가족들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300개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전력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라이팅 칠드런(Lighting Children)'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투자증권 임직원과 가족들이 손수 제작한 태양광 충전 랜턴은 추후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미얀마, 탄자니아, 말라위 등 해외 각국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전기 없이 캄캄한 밤을 보내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내일을 밝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광호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이사 윤용희

부음

- ▲박재규씨 별세, 이희수(한양대 교수)·이희재(우성아이비 대표이사)·이희옥(성균관대 교수)·이민희(문화해설사)씨 모친상 = 1일 낮 12시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2-3410-6901
- ▲류연중씨 별세, 류경화·류영자·류승남·류성(이데일리 국장)씨 부친상, 김재동·손주산·김종현(계원예술대 교수)씨 장인상, 한주현씨 시부상 = 2일 오전 3시40분, 새고창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63-561-2904
- ▲한병정씨 별세, 최봉호·최정호·최양호·최주호(삼성전자 베타남북합단지장 부사장)·최유호씨 모친상 = 1일, 전북 남원시 MG새마을금고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063-636-4141